한 땀, 한 땀씩…日, 가사 재현 프로젝트 눈길

8세기 조성된 '쇼토쿠 태자 가사' 재현

박영빈 객원기자

대중 1000여 명 전통방식 따라
수 놓듯이…조성 기간 1년 예상
주요 법요 · 기도회서 사용 예정



요진스님의 설명에 따라 가사에 바늘땀을 놓는 참가자들. 사진출처=요미우리 신문

출가수행자가 반드시 받아 지녀야 하는 법의인 가사. 최근 일본에서 8세기경의 유물인 가사를 대중들의 힘으로 재현 복원하는 불사가 시작돼 화제다. 8월 8일,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은 천년고찰 스마데라(須磨寺)에서 진행하는 '쇼토쿠 태자 분소의 재현 프로젝트'에 대해 특별보도했다.

지난 7월 18일, 스마데라에서 시작된 가사 재현 불사는 1년을 기한으로 시작됐다. 스마데라의 사무장 코이케 요진 스님은 "불교에서는 대중이 모두 합심하여 한땀 한땀 가사를 꿰매는 것은 부사의한 공덕이 있다고 전한다"며 가사 조성의 공덕을 설명했다.

이번에 조성될 가사는 고대 일본불교의 중요한 인물인 쇼토쿠 태자(聖德太子)가 불경을 강의하고 수행할 때 수했다고 전하는 분소의 가사다. 현존하는 가사로는 가장 이른 시기에 해당하는 8세기경의 유물로 가로 2.6m, 세로 1.4m의 7조가사로 현재 도쿄국립박물관에 소장돼 있으며 일본의 중요문화재로 지정돼 있다. 이 가사는 실제 분소의를 상징하여 다양한 색으로 염색된 삼베조각들을 이어 꿰맨 것으로 주변과 네 귀퉁이는 푸른색의 삼베가 덧대어져 있다.

요진 스님은 "이번 가사 재현 프로젝트는 평소 존경했던 후쿠시마 스님의 발원으로 시작된 불사라면서 "손으로 직접 가사를 지으시던 스님께서 일생의 발원으로 분소의를 재현하기를 원하셨으나 지난 1월 갑자기 입적하셨다"며 불사가 시작된 계기를 설명했다. 이후 요진 스님은 재현 프로젝트의 관계자로부터 "후쿠시마 스님께선 3벌의 분소의 가사를 조성하고, 그 중 한 벌을 요진 스님께 주고자 하셨다"라는 말을 전해 듣고 깊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재현 프로젝트를 이어 받기로 결심했다.

요진 스님은 분소의와 나라시대 복식에 익숙한 나라국립박물관의 미타 카쿠유키 주임연구원의 협력을 얻어 실제 분소의 가사와 동일한 색과 모양을 재현한 삼베를 20장 가량 직조했다. 스님은 "가사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 천을 짜는 실과 염색한 염료 등은 모두 경내에서 전지한 벚나무의 껍질이나 잎, 또 진언밀교의 성지인 고야산의 삼나무 등에서 얻었다"고 밝혔다. 요진 스님과 미타 연구원은 "전통방식과 고사를 따라 한 사람씩 각각 몇 땀을 놓는 식으로 가사를 조성할 예정"이라며 "완성엔 적어도 1000명의 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달 18일, 스마데라에서 시작된 첫 재봉회에 참가한 한 여성 불자는 "이곳에 와서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게 됐다.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가사를 꿰맸다"며 소감을 전했다.

스마데라 측은 이후 바늘땀을 놓는 이벤트를 정기적으로 열어, 1년에 걸쳐 가사를 조성할 예정이다. 완성된 가사는 이후 스마데라에서 봉행되는 기도회나 중요한 법요에서 사용될 예정이다. 요진 스님 "마음속에 담긴 말이나, 소중한 사람에 대한 생각을 담아 놓은 바늘땀을 통해 불교의 가르침을 접할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가사 재현 프로젝트에 많은 대중의 동참을 호소권선했다.

불교 인권 운동가 라니 얀 얀, 글로벌 反인종주의상

美 국무부, 세계 원주민의 날 기념
아마존 출신 원주민 지도자 등 6인



2023 반인종주의 챔피언상을 수상한 라니 얀 얀(사진 왼쪽). 사진출처=부디스트도어

방글라데시 치타공 지역에서 원주민과 여성들의 인권을 위해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불교 사회운동가 라니 얀 얀(Rani Yan Yan)이 글로벌 반인종주의상을 받았다.

8월 10일 불교 온라인 매체 부디스트도어(Buddhistdoor)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전날 세계 원주민의 날(8월 9일)을 맞아 사회 운동가 라니 얀 얀에게 2023 반인종주의 챔피언상을 수여했다.

라니 얀 얀은 치타공 지역에서 불교도 소수 민족인 차크마(Chakma) 공동체를 위해 반인종차별 캠페인을 벌이는 불교 사회 운동가다. 때문에 소수 민족을 반대하는 부류에 의해 때때로 공격을 받기도 한다. 얀 얀은 뉴사우스웨일스 대학교의 외교 훈련 프로그램을 수료했고, 아시아 태평양 포럼에서 페미니스트 법률 이론 및 실천을 공부했다.

미 국무부는 "얀 얀은 차크마 공동체의 리더로서 각종 차별과 폭력, 혐오 등으로부터 차크마 주민들을 보호한다"며 "얀 얀의 직접적인 운동 덕분에 국제사회는 방글라데시의 토착민 공동체와 소수 집단에 대한 폭력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뿐만 아니라 얀 얀은 기후 탄력성과 성평등에 대해 국내 및 국제 조직에 자문을 제공하고 토착 여성의 정치 참여를 연구했다. 또 다양성과 사회적 포용 관련 청소년 활동가를 멘토링하고 있다"며 "엄청난 차별과 심지어 폭력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없는 목소리로 동등한 권리와 정의를 옹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얀 얀은 이날 시상식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단체 및 보안군에 의한 지속적인 토지 수탈, 방화 및 지역 사회 공동 공격, 원주민 여성 및 소녀에 대한 폭력 가해자 면책 등이 빈번히 벌어지고 있다"며 "특히 소수 민족 중에서도 여성들의 인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나는 전 세계의 다른 인권 옹호자들과 마찬가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며 "정의로 가는 길은 결코 쉽지 않다. 인종 차별과 구조적 불의에 맞서 싸우는 전 세계 모든 사람과 연대해 차세대 리더와 챔피언을 강화하고 고양시키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브라질 아마존 출신의 원주민 지도자인 카리 구아자자라(Kari Guajajara), 페루인의 인정과 권리를 위해 40년 이상 투쟁한 오스왈도 빌바오 로바톤(Oswaldo Bilbao Lobatón), 반인종차별 운동가 싸디아 모스바(Saadia Mosbah), 네팔의 인권 운동가 살스와티 네팔리(Sarswati Nepali), 인권 변호사 빅토리나 루카(Victorina Luca) 등이 얀 얀과 함께 2023 글로벌 반인종주의 챔피언상을 수여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달라이 라마, 자연재해 세계 위한 기도

8월 10일, 홈페이지서 공식 메시지
산불·폭염 등 이상기후 심각성 지적
고통 받는 이 위한 연대 촉구하기도



달라이라마는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재해에 전세계의 연대와 기도를 호소했다. 사진출처=부디스트 도어 글로벌

극심한 자연재해가 전 세계적으로 보고되는 빈도가 늘어남에 따라 달라이라마는 기후위기 영향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자는 공개 성명을 발표했다. 8월 11일 국제 불교뉴스 전문매체인 '부디스트 도어 글로벌'은 달라이라마 공식 사무국의 성명을 인용해 달라이라마의 메시지를 전했다.

달라이라마는 지난 10일 발표된 성명에서 "올해 우리는 세계 여러 곳에서 충격적인 일련의 자연재해를 목격했다"며 서두를 열었다. 그러면서 "홍수, 산불, 허리케인 발생으로 재산과 자연환경이 파괴되고 비극적인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 지구 온난화와 기후 위기가 결국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부디스트 도어 글로벌은 "현재 캐나다와 그리스는 모두 기록상 최악의 산불을 보고했으며, 호주와 칠레도 올해 초 극심한 산불로 큰 피해를 입었다. 남유럽과 아시아의 많은 지역이 이번 여름에 극심한 폭염을 기록했고, 많은 지역이 극심한 계절성 폭우와 돌발 홍수로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일어났다"면서 "달라이라마의 기도와 메시지는 이에 대한 연대를 촉구한다"며 전 세계적인 이상기후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현재 과학자들은 올해 지구 해양이 기록적인 온도상승을 보였다고 보고했다. 과학자들은 이는 해양 생태계의 위험과 지구의 기후를 포함한 전반적인 안정성에 심각한 위험이 있다는 징조라고 경고했다. 지난 7월 세계기상기구 사무총장 페테리 탈라스 공식 성명을 통해 "지구 온난화가 심각해 지면서 점점 더 자주 발생하는 극한의 기후변화는 인간과 지구 생태계는 물론 경제, 농업, 에너지 및 물 공급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을 가능한 한 빠르고 심도 있게 줄이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달라이라마는 성명에서 이러한 이상기후로 사상사고를 입은 이들에게 애도와 위로를 표했다. 달라이라마는 "우리 모두는행복을 원하고 비극을 피하길 원하는 동일한 인간"이라면서 "인류가 하나라는 맥락에서 우리 모두는 서로 돕고 지원할 책임이 있다"며 세계적인 연대와 기도를 호소했다. 달라이라마는 특히 "최근 중국 북부와 일부 티베트 지역에서 발생한 홍수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재산과 지역 생태계가 광범위하게 피해를 입었다"며 이에 대한 연대의 표시로 구호활동에 재정적 기여를 할 수 있길 바란다고 중국 측에 제안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인도에 14m 높이 석가모니 부처상 조성

MIMC 데바찬 캠퍼스에
"세계 평화 영감 줄 것"



인도 레 지역에 14m 높이의 석가모니 부처상이 조성됐다.〈사진〉

8월 15일(현지시간) 불교 인터넷 매체 부디스트도어(buddhist door)에 따르면 이달 초 마하보디국제명상센터(Mahabodhi International Meditation Centre, 이하 MIMC)의 데바찬 캠퍼스에 위치한 세계평화부처 공원에서 14m 높이의 석가모니 부처상 조성 법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전 세계 원로 라마승 등 500명이 참석했다.

MIMC 설립자이자 회장인 비히쿠 상하세나(Bhikkhu Sanghasena) 스님은 "새로 조성된 동상은 세계 평화를 기원하고 많은 세대가 불법의 길을 따르도록 영감을 줄 것"이라며 "갈등과 혐오의 시대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더욱 널리 전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상하세나 스님은 지난 2021년 라다크 국경 지역에서 코로나19 구호활동 및 정서적 상담과 평화 캠페인 등을 벌였다.

박정현 객원기자

현대불교신문
구 독 안 내
전화 한번에 끝!
자동이체로 전환하세요
02-2004-8212

불교의 현대화 1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삶의 보편적 가치를 올곧게 지탱하는 힘
불교의 생활화 2 생활 속의 지혜와 자비로 꽃 피는 가르침
불교의 세계화 3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의 행복한 삶

신문을 구독하시면 생활안내·불자정보
(사찰, 포교당 양도및 기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kakao Ch 카카오톡 채널에서 현대불교신문을 검색하세요!
NAVER 현대불교신문